

# 비극의 역사 위 억겁 세월을 음미하다



순교성지 회화나무

## 충남 서산 해미읍성

바람은 불지 않고 하오의 가을별은 따사롭다. 한낮의 해미읍성은 고요하다. 성은 견고하고 정교하다. 단아함마저 묻어낸다. 해미읍성을 조선의 3대 읍성(고창읍성, 순천 낙안읍성) 가운데 으뜸으로 치는 이유다.

서산은 서해로 빠져들지 못하게 지형만듬이나 바다와 가깝다. 내륙은 호리병처럼 좁고 긴 천수만을 거느린다. 이곳은 현대 창업자고(故) 정주영 회장의 해안이 기발한 상상력으로 현실화된 곳이다. 폐유조선 공법으로 바다를 막아 광활한 간척지를 개간했다. 그 서산의 남동쪽에 해미(海美)읍이 있다. 예로부터 풍부한 물

란에 휩싸인다.

마침내 해미읍성의 옥문이 열렸다. 오랏줄에 묶인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줄레줄레 동헌(東軒) 앞으로 끌려나왔다. 실력자인 대원군은 천주교인들을 참형에 처했다. 그에게 천주를 믿는 교인들은 내치를 강화하고 외세를 배격할 근거가 되었다.

회화나무. 그곳에 천주교인들을 달았다. 해미읍성 중앙에, 동헌 앞에, 교인들은 줄줄이 매달렸다. 교인들은 반항하지 않았다. 한 떨기 꽃처럼, 빛나는 벌처럼, 영롱한 새벽이슬처럼, 한줄기 바람처럼, 스러지는 안개처럼, 그들은 그렇게 산재물이 되었다.

매번 사술의 흔적을 그려야 하나보다.

나희덕 시인은 '해미읍성에 가지거든'에서 회화나무를 이렇게 표현한다. "나무가 몸을 베푸는 방식이 많기도 하지만 허필 형틀의 운명을 타고난 그 회화나무". 신실한 이들을 매달아야 했던 그 나무. '수천의 비명이 크고 작은 용이로' 박힌 나무는 그날의 참극을 무언으로 방증한다. 그리하여 이 가없고 처연한 나무는 오래도록 살아 그 무참함을 감당한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살아서 그 가족의 시간을 되새김질하는 거다. 망각보다 무서운 것은 기억이며, 기억보다 더한 고통은 각인이다.

## 구한말 천주교인 박해 역사 증언하는 회화나무 3대문·객사·동헌 둘러보며 500년 전 시간여행



진남문

산이 거대되고 한양으로 떠나는 세곡선이 이곳을 거쳤다. 당연히 왜구들의 출몰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 영(營)을 두고 성을 쌓게 된 이유다.

그러나, 왜군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한 그 성에서 살육의 참상이 있었다. 때는 구한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병인(1866)년, 대원군이 내린 천주교 금압령(禁壓令)으로 고을마다 평평한 긴장감이 감돌던 즈음이었다. 쇄국양이(鎖國洋夷). 대원군은 서양인을 오랑캐로 규정하고 문호를 굳게 닫았다.

그 즈음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 묘가 독일 상인 오페르트에 의해 도굴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지역 교인 주장인 이준창이 모친의 제사를 지내지 않기 위해 신위를 불태우는 일도 일어난다. 두 사건 모두 천주교인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은 일대 파

그들에게 신앙은 생명이었다. 봉건의 관념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지극한 도였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열원으로 가까이 죽음을 택했다. 그들은 약하지만 비굴하지 않았고, 담대하지만 무모하지는 않았다. 이 역사의 힘은 진리다. 현상이 아닌 가치를 추구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절대 자유이며, 그것의 기원은 영적 세계에 대한 갈망이다.

"충청도 말로 회화나무를 호어나나무라고 합니다. 회화나무는 공부하는 이가 그 그늘 아래 있으면 머리가 맑아진다고 합니다. 학자수라고 불리는 연유지요. 그런 맑고 고결한 나무에 산 사람을 매달아 극형을 처했으니..."

문화해설사 구영희 씨의 눈빛이 호어나나무 가지 끝에 닿는다. 가늘게 떨리는 눈빛이 이편에서도 느껴진다. 해설할 때마다 그녀는

해미읍성은 조선 태종 17년(1407)때 쌓기 시작해 세종 22년(1491)에 완성했다. 출입문은 정문인 진남루, 동문, 서문이 있고 2개의 포문이 있다. 전체적인 성벽 길이는 1.5킬로미터, 높이 5미터이며 성안의 면적은 2만평 정도 된다.

당초 해미읍성은 3중 방어 시스템으로 축조되었다. 성 주위로 탱자나무를 둘렀고 안으로 '해자'(壕字)라는 습지를 조성했다. 왜구들의 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한 방책이었다. 성 자체만 두고 보면 해미읍성은 꽤나 좁게는 높다. 소속 군졸만 대략 1500명에 충청도 병마절도사가 상주했다. 13개 군현을 관할했으며 평시에는 군사훈련을 담당했다. 문헌에 따르면 1579년 이순신도 이곳에서 열달 가량을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다.

청허정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해미읍성 북쪽에 아담한 정자다. 무리지어 피어난 코스모스가 가을의 향기를 뿜어낸다. 숨이 멎을 만큼 고운 향기다. 평시에는 선비들이 이곳에 들러 시를 읊었다.

방안년을 전후해 벌어졌던 참극의 장면이 흑백필름처럼 지나간다. 백성을 지키라고 쌓은 성에서, 대원군은 참형을 집행했다. 그에게 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위임했는가. 많은 이들이 죽어간 이곳에서 역사는 에누리가 없다는 사실을 되뇌인다. 그리하여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호어나나무를 보면서, 오늘의 역사를 생각한다.

/글=박성현기자 skypark@. 사진=박성배 사진가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성역 | 광송리도로

북고당 한약방

●생약도매  
●한약재이력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